

# 상호 문화 이해 교육

## - 한국인의 정서 '흥'을 중심으로 -



# 1. 상호 문화 이해의 개념과 특징

# I. 상호 문화 이해의 개념과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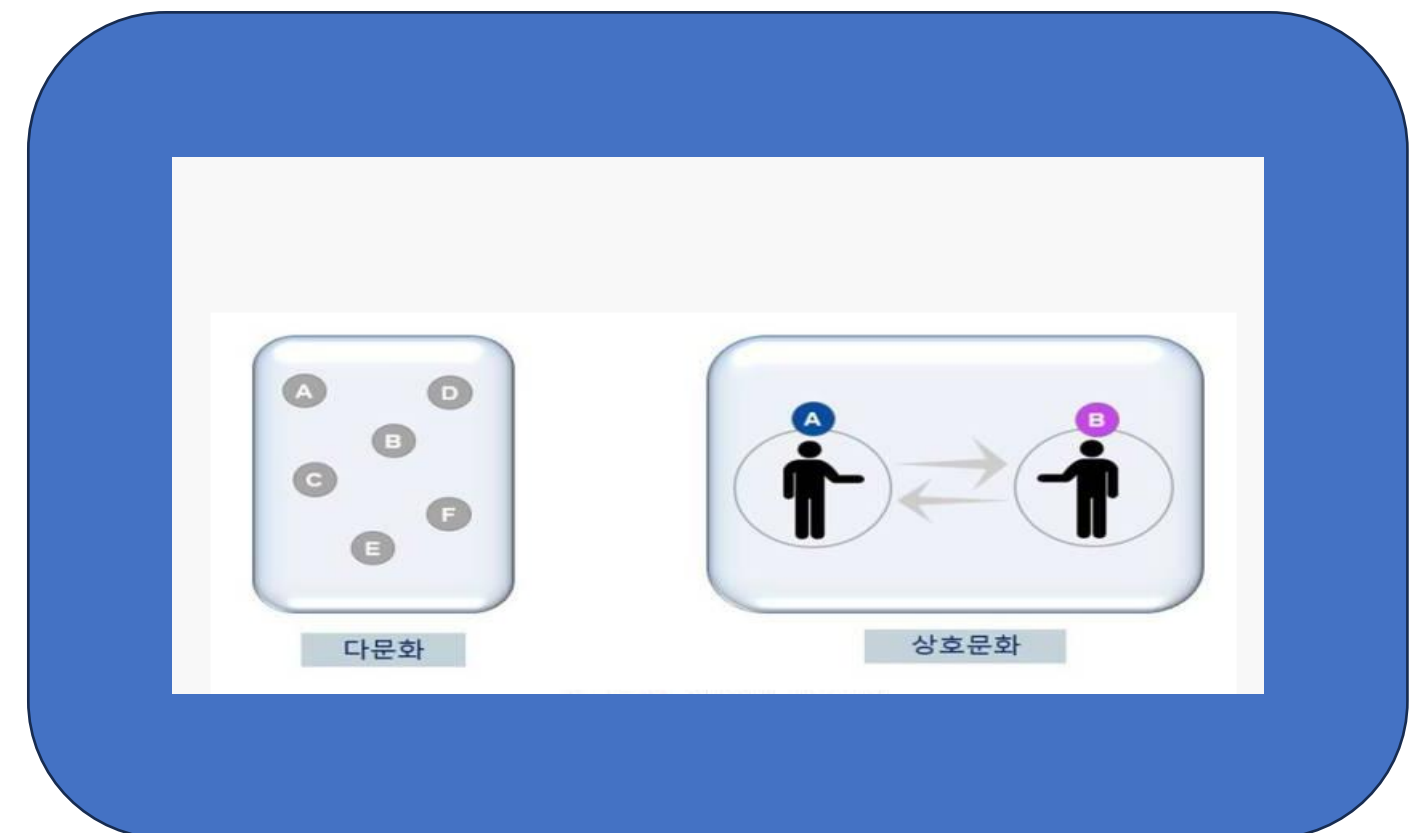
---

- 상호 문화(Interculturalité)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관계로써 문화 간의 상호 작용 과정, 다른 것에 대한 인식 과정, 문화를 전이하고 수용하는 과정으로 상호 문화는 상대방이 서로 다름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함.
- 상호 문화의 개념은 '정체성'과 '상대방에 대한 인식'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.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객관화 가능.
- 상호문화에 대한 태도는 원칙적으로 동등함을 전제로 다른 문화와의 상호 작용을 의미함. 상호 문화는 일종의 인종 차별 형태인 문화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.



# I . 상호 문화 이해의 개념과 특징

- 다문화는 “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자발적인 효과”를 만들어 내며 통일화를 방해하기도 함.
- 상호 문화는 공존의 단점을 해결하고 단점을 가능한 장점으로 만들기 위하여 문화 전파자들 간의 유기적 결합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- 상호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고정 관념 타파 필요.



## Ⅱ. 한국인의 정서 '흥'의 이해



# 1. 한국인의 '흥'이란?



## 2. 미적 감정으로서의 '흥'의 특징

---

- (1) '흥'을 의식하고 즐긴 계층: 양반에서 천민까지 모든 계층
- (2) 미의 역사에서 '흥'의 위상: <시경 (詩經)> 편찬 때부터 관심의 대상
- (3) '흥'의 국제성: 동아시아 한문 문화권의 공통적 미적 감정
- (4) '흥'의 근대 한국적 특성: 주로 음악과 관련하여 의식하거나 체험하며  
그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
- (5) 근대에 들어와 '흥'과 '멋', '신명'이 서로 관련을 갖게 됨  
예) 신명: 흥겨운 신과 멋(국어 사전의 풀이)
- (6) 흥의 속성: 즉흥성, 낙천성(긍정성), 개방성, 개별성, 집단성



### 3. '흥'과 '신명'의 비교

---

(1) 신명의 유래 : 신명의 어원은 '신내림', '신들림'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분명하지 않음

- 神이 내리다 / 神이 지피다 / 神 들리다 / 神풀이
- 신이야 뉘이야 / 신명을 떨다 / 신명지다
- 신바람: 어갯바람의 방언 (어깨춤)

\* 신명 현상이라 할 만한 것들이 존재해 왔지만 이 용어는 20세기에 와서 정립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됨

- 뭇사당 거사들이 신을 내어 노래한다(이선유, <흥보가>)
- 남이 신이 나는데 그래(<양주별산대>(1930), 팔목중과장)
- 신명을 '神明'으로 해석하고 표기하거나 신명풀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.



### 3. '흥'과 '신명'의 비교

---

#### (2) '신명'의 성격

- 하층에서 쓰기 시작한 용어(추정)
- 20세기에 등장한 용어(추정)
- '흥', '즐거움' 등이 '신(신명)'으로 대체되는 경향

#### (3) '흥'과의 관계

- 어떤 외적 상황에서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함.
- 고조된 '흥'은 '신명'과 겹침(역동성).
- 반복적일 수는 있으나 영속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적임.
- '흥'은 미적 감정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'신명'은 다른 영역으로 확산 중임.

예: 신명이 나서/ 신명 나게 일을 하다

### 3. '흥'과 '멋'의 비교

---

#### (1) '멋'의 어원과 등장 시기

- '맛'에서 유래, 19세기 중엽에 '맛'에서 분화하여 등장한 것으로 추정, 용례가 많은데, 이는 맛의 용례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임.

#### (2) 성격

- 1) 판소리와 잡가 등을 기반으로 용례가 등장하기 시작함.
- 2) 풍류의 맛을 아는 것, 즉 예술을 즐길 줄 알거나 예술을 할 수 있는 능력
- 3) 옷차림의 미를 지칭하는 것으로 확대
- 4) 관습, 규범 등을 넘어서 일을 잘 처리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확대
- 5) 미각 -> 청각 -> 시각 -> 확산 중



## 4. '흥'과 '멋'의 비교

---

### (3) '흥'과의 관계

- 1) '멋'과 '흥'은 풍류를 매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.
- 2) '멋'은 아는 것 : 멋있다, 멋을 안다
- 3) '멋'은 인간 속에 들어 있는 것 : 멋있다, 멋들어진, 멋이 든 사람
- 4) '멋'은 부리는 것 : 멋쟁이, 멋 부리다.
- 5) '멋'은 항상적이거나 수시적인 것 : 의상처럼 일상적 실천이 가능함
- 6) '멋'은 일탈의 성격을 지니나 조화를 지향 : 멋쩍다, 멋모르다, 멋대로
- 7) '흥'은 유발되는 것 : 외부 사물과의 관계에서 발생
- 8) '흥'은 일시적인 것 : 반복적일 수는 있으나 지속적일 수는 없음.

# Ⅲ. 상호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'흥' 이해 교육



# 1. 상호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'흥' 교육 내용

---

## (1) 대상과의 교감을 통한 흥

: 흥은 자연과 인간, 주체와 대상 간의 교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취되는 정서임.

## (2) 즉흥적 성격으로서의 흥

: 흥은 삶과 유리된 이상적·초현실적 세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되는 정서로 직접적으로 분출됨.

## (3) 낙관적 성격으로서의 흥

: 흥은 흥을 유발시키는 대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주체가 처한 현실을 긍정하는 낙천적 마음가짐임.

## (4) 집단적 개방성으로서의 흥

: 흥은 여럿이 함께 즐기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때 배가되는 특성이 있음.

즉 현실 또는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흥의 개방성과 놀이성이 잘 드러남.

# 1. 상호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'흥' 교육 방법

## (1) 학습자의 흥에 대한 기초 지식 확인

: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학습자의 흥에 대한 기초 지식 및 학습자 나라에 이와 유사한 정서가 있는지 확인

흥'은 정말 신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. 한국 사람들은 노래방이나 클럽 같은 곳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다 흥이 많아서라고 생각해요.

- 일본인 학습자 B-2 -

언어교육원에서 '흥'을 'interesting', 'fun'이라고 배웠어요. 한국 사람들은 아리랑을 부를 때 흥이 난다고 해요. 근데 아리랑 노래를 들으면 재미있지 않고 기분이 다운되는데 왜 흥이 난다고 할까요? 흥은 신나는 거라고 배웠는데 .....

- 미국인 학습자 C-1 -



# 1. 상호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'흥' 교육 방법

## (2) '흥'의 실체에 대한 이해

: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학습자의 흥에 대한 기초 지식 및 학습자 나라에 이와 유사한 정서가 있는지 확인

1) '흥'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.

--> 흥은 대상과 주체 사이의 감정상의 교류를 의미함.

2) '흥'과 신명(신)'의 구분이 필요함.

--> 흥과 신명은 동일한 뜻으로 교수-학습되고 있으나 분명한 차이가 있음.

예를 들면 흥이 상승, 고조된 상태가 '신명(신)'임.

3) 현대 한국인들은 흥을 '신명, 신, 신바람'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줌.

# 1. 상호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'흥' 교육 방법

## (3) '흥'의 용례를 통한 개념 이해

: 교사의 명시적 설명이 아닌 대상(흥)이 구체적으로 사용된 텍스트나 담화 맥락을 통한 교수-학습

미 미: 우와! 이 곳은 정말 아름답네요.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서 노래가 흥얼흥얼 저절로 나와요.

철 수: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연을 벗 삼으면 흥이 저절로 난다고 해요.

제임스: 미영 씨, 저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제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한국 사람들의 열광적인 응원에 깜짝 놀라요.

미 영: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운동 경기 때마다 정말 놀라고 있어요. 그런데 친구나 가족들과 모여서 함께 응원하니까 더 흥이 솟더라고요!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 때도 친구들과 단체로 응원하려고 해요.



# 1. 상호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'흥' 교육 방법

---

## (4) 실현과 공감을 통한 '흥'의 체험

: '흥'의 체험은 개인과 집단의 두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흥을 직접 실현하거나 공감해 보는 활동을 해 볼 수 있음.

### 1) 흥의 실현

- 개인적 차원: 춤과 노래 등
- 집단적 차원: 산림욕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야외 활동

### 2) 흥의 공감

- 개인적 차원: 작품 속의 흥에 공감하기
- 집단적 차원: 마당극, 판소리 등을 관람하며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  
예: 청중의 추임새 등

# 1. 상호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'흥' 교육 방법

## (4) 타 문화 간의 토론을 통한 '흥'의 인식

: 학습자의 특수한 문화 지식과 보편적 문화 지식을 활용하여 문화 간 비교, 대조, 평가 활동/ 교사는 학습자 나라의 정서나 정신문화에 대한 사전 지식 구비

중국에서도 판소리와 비슷한 장르의 민간 예술이 있는데요. 상성(相聲)이나 경극(京劇), 쾌반(快板) 같은 것을 볼 때 청취자들은 그 내용의 흐름에 따라 “好(좋아), 好(좋아)”하는 추임새를 넣어 자신이 신이 났다는 것을 표현합니다. 그리고 수업을 듣기 전에는 한국의 흥이 억제된 삶 속에서 슬픈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수업을 듣고 난 후에야 흥이 억눌린 한을 터뜨리기 위한 방식만이 아닌, 보다 넓은 의미에서 언제 어디서나 즉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
-중국인 학습자C-2

제니 말처럼 미국에는 한국의 흥에 대체되는 비슷한 개념이나 정서가 없어요. 잘은 모르지만 유럽이나 중미 문화의 카니발 같은 게 흥과 비슷하지 않을까요? 아니면 'mardi gras'라고 사순절 시작 전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마시고 떠드는 행사가 있는데 그게 축제나 마찬가지로 한국의 흥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.

- 미국인 학습자 C-2



# <함께 생각해 보기>

1. 초급 학습자에게 상호 문화 이해 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한국 문화에는 무엇이 있을까?
2. 상호 문화 이해 교육의 내용을 선정한 후, 이에 따른 교수-학습 방안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?



감사합니다.